

청년기 여학생의 외모관련태도와 의복태도와의 관련 연구

A Study Related to Adolescent Girl Students' Appearance-Related Attitude and Clothing Attitude

이은희*

원광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Lee, Eun Hee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WonKwang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appearance-related attitude(attitude toward appearance, body satisfaction) and clothing attitude, and to examine how clothing attitude was influenced by appearance-related attitude. The method of this study was survey research by using questionnaires. Subjects were 700(middle school students 217, high school students 227, university students 256) girl students located in Junrabookdo province. In this statistical analysis, SPSS 11.5 for Windows program was utilized to calculate frequency, mean, factor analysis, cronbach's α ,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were as follows: The results of analysing the factors to the response clothing attitude emerged five dimensions(fashion pursuit, gender attractiveness, self-expression, aesthetic, and modesty). University school girls' students showed higher attitude toward appearance, body satisfaction, clothing attitude except of modesty. Clothing attitude variables except of modesty had positive correlations with appearance-related attitude. However, modesty of clothing had negative correlations with appearance-related attitude. As a conclusion, adolescents' appearance-related attitude constituted important characteristics which could affect clothing attitude directly.

Key Words : Adolescents, Appearance-Related Attitude(attitude toward appearance, body satisfaction), Clothing Attitude

I. 서론

발달단계 중 청년기는 하나의 고립된 시기가 아닌 그 이전 단계로부터 독특한 영향을 받아 생성되며, 그 다음에 올 인생단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시기이다. 일반적으로 청년기는 중학교를 입학하여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중학교(12~15세) 시기를 청년 초기, 고등학교(16~18세) 시기를 청년 중기, 대학교(19~22세) 시기를 청년 후기로 구분하고 있다(장휘숙, 1996; 김재한, 1998; Walker, Greere, 1986).

오늘날 정보화 사회에서 전달의 기능을 지니고 있는 외모에 대한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요구하는 사회적 외모 기준 또한 점차 서구화되어 가고 있

는 추세이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외모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청년기 학생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다.

외모는 타인에 대해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이며, 그 사람의 성별, 연령, 사회경제적 지위, 직업 등을 판단하게 하는 상징적 역할을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모를 보완하고 과시적 효과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화장을 하거나 의복과 장신구를 이용하여 치장하는데 높은 관심을 가지며 심지어는 취약한 신체부위를 성형하기도 한다. 이렇듯 의복은 개인의 외모관리를 위한 보편적인 도구로 활용된다(전경란, 2002; Roach-Higgins, Eicher & Johnson, 1995). 청년기는 특히 자신의 외모를 사회와 연결시켜 의복을 착용하고자 하므로 외모에 대한 만족과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애란, 김양진, 1996; MacGillivray

* Corresponding author: Lee Eun Hee
Tel: 063) 850-6589
E-mail: ehlee@wonkwang.ac.kr

& Wilson, 1997). 또한 청년기는 자신의 외모에 불만족하고 있으며 신체의 결함이나 불만감을 극복하기 위하여 의복을 사용한다(김양진, 강혜원, 1996). 외모에 대한 만족과 불만족은 기분이나 행동에 영향을 주게 되어 의복을 잘 입었다고 느낄 때는 자신감이 더 있고 적극적이 되나, 적당하지 못한 의복을 입었을 때는 심리적으로 위축감을 느끼게 된다(심정은, 고애란, 1997). 조선명(1999)은 청년기 여학생은 신체적 외모와 사회적 중요성을 인정하고 자신의 가치로 내면화 할수록 자신의 신체에 대한 관심이 커진다고 하였다. 또한 매력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의복을 통해 이상적 신체모습과 개성·자기 표현의 혜택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외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청년기 건전한 외모관리를 위한 하나의 지침을 마련한다는 뜻에서도 외모관련태도를 의복태도와 관련지어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발달과정에서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에 있는 청년 초기·중기·후기에 해당되는 중·고등학교 여학생과 여대생을 대상으로 외모관련태도와 의복태도와의 관련성을 알아보고, 이들 변인들의 영향력을 파악함으로써 청년기 의생활 연구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기 의복태도의 차원을 알아보고, 둘째, 발달단계에 따른 외모관련태도와 의복태도의 차이를 알아보고, 셋째, 청년기 외모관련태도와 의복태도와의 관련성을 조사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외모관련태도

외모는 타인에 관해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이며, 사회발달과정에서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즉, 외모는 사회적 고정관념의 유력한 원천이며, 한 개인의 신체적 매력은 타인에 의해 사회적 평가의 기초로서 사용되는 사회적 단서이다.

어떤 문화에서든 우선시 되는 이상적인 외모는 사람들이 그들의 외모를 창조하고 자신과 비교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미적기준으로 내면화된다. 자신의 신체적 외모평가가 사회비교에 의해 이루어지면 사람들은 사회에서 요구하는 이상적인 기준에 접근하기 위해 의복이나 화장과 같은 외모관리행동으로 동기화한다. 현재 우리문화에서 이상적인 외모는 주로 매스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며, 사회적 행복이나 성공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이 결합되어 신체적

외모의 사회적 이상이 강화되고 있다. 날씬함으로 표현되는 신체적인 매력은 우리 문화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각 개인은 외모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자신의 가치와 태도를 내면화한다. 이와 같이 외모에 대한 태도는 개인의 신체에 대한 평가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며, 개인은 사회의 이상적인 신체모습을 반영한 의복을 통해 외모를 보완하고 사회적 기준에 좀 더 가까운 외모로 만들어간다.

이렇듯 신체적 외모에 대한 중요성은 강화되고 있고, 매스미디어를 통해 촉진되는 신체적 매력과 사회적 이상에 대한 메시지는 개인의 태도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친다. 즉, 사람들은 신체적 외모의 사회적 이상과 외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나아가 자신의 가치로 내면화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형성된 태도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더 타인과 자신의 신체를 비교하고 의식하게 되며 이것은 전체적인 외모 평가에도 영향을 미친다(Featherstone, 1991; Heinberg, Thompson & Stormer, 1995; Thompson & Heinberg, 1999).

특히 발달과정상 급속한 신체적 성장을 경험하고 외모에 관심이 집중되는 청년들에게 있어서 그 영향력은 매우 크다. 전반적으로 자기지각에 있어서 신체적인 지각이 매우 특출한 시기이므로 성장과 더불어 타인들의 반응과 평가를 통해 사회화되고 경험적 자기를 형성해간다. 이러한 과정에서 외모가 자기구축과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Stuart & Sundeen, 1995; Kaiser, 1990). 청년기의 외모관련행동은 실질적이기보다는 감각 지향적이므로 외모의 멋을 추구하고, 아름다운 의복과 패션에 대해 민감한 반응으로 나타난다(이은희, 2000).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자신의 신체에 불만족하고 있으며, 신체의 결함이나 불만족을 극복하기 위해, 즉 외모향상을 위해 의복을 사용한다(김양진, 2000). 신체는 의복과 함께 외모구성요소로서 작용하여 청소년들은 외모 가꾸기에 열중하고 연예인의 화장을 모방하며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여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다. 특히 매스미디어의 영향으로 청소년들은 비교적 마른 체형을 이상적인 신체상으로 선호하고 있으며, 실제보다 자신을 뚱뚱하다고 왜곡하는 경향이 있다(이미숙, 2000; Jacobi & Cash, 1994). 청소년들의 외모관련행동의 또 다른 특성은 과소비와 브랜드제품을 선호한다는 것이다(이명희, 2001).

청년기는 발달과정상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변화를 겪게 되며, 신체의 건강 여부, 결함의 유무와 신체적 우열 등 신체 외모는 지적, 정서적, 사회적 모든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같이 청년기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증가하고 외모가 이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에 따라, 매력적인 외모를 위한 외모 관리 형태가 의복태도와 관련지어 나타난다고 하였다. 즉, 타인의 반응을 고려한

의복으로 자신의 신체 매력을 과시하려는 행동을 하게 된다. Lennon, Rudd, Sloan, & Kim 등(1999)은 외모에 대한 자신과 타인의 평가가 부정적일 때 개개인은 사회적 미의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 여러 전략을 구상하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외모는 신체이미지와 착용된 의복의 특성에 의해 동시에 작용함으로써, 신체와 의복에 의해 구성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Horn, & Gural, 1981; 심정은, 고애란, 1997).

청년기의 외모에 대한 관심은 기성세대와는 구분되는 그들 특유의 패션과 음악, 영화, 카페 등 그들만의 문화를 형성하려는 경향을 나타내며, 가족이나 또래 집단은 물론 다양한 대중매체의 노출을 통한 대중문화의 영향으로 자기 정체감과 라이프스타일을 형성해 간다. 이러한 청년기의 자아정체감은 높은 의복관심과 또래집단의 의복동조, 연예인에 대한 외모 모방과 유행에의 몰입 등과 같은 특징적인 행동을 통해 형성되어간다(이인자, 이경희, 신효정, 2001). Thompson 등(1999)은 점점 날씬해져가는 사회적 외모이상은 매스미디어를 통해 전달되고 촉진되며, 이러한 상황에서 10대 소녀를 중심으로 한 여성들이 좀더 자기 외모를 의식하고 외모관리에 신경을 쓴다고 하였다. Ryan(1966)도 청년기는 용모에 관심이 많고, 추상적인 개념보다는 구체적인 의복과 외모로써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의복과 외모에 대한 흥미를 높인다고 하였다. 청년 초기·중기·후기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선명(1999)의 연구에서도 신체적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신체이미지의 감정적 차원과 인지적/행동적 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체적 외모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상적인 사회적 기준을 자신의 가치로 내면화하여 신체적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를 형성하게 되면, 이의 영향을 받아 자신의 신체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고, 자신의 외모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외모를 향상시키려는 성향이 커진다고 하였다.

청년기의 신체만족도와 신체매력성은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 낮았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게 나타났다. 자신의 외모에 대한 평가도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부정적인 평가를 하며 마른 체형을 지향하였다(정재은, 이순원, 1993; 구정화, 1994; Cash, T., Winstead, B. & Janda, L., 1986). 이것은 여학생들이 청년기 초기에 남학생보다 갑작스런 체중 증가 등의 많은 신체변화를 겪게 되어 자신의 체형에 대한 의식정도가 높아지며, 또한 자신의 신체를 덜 매력적으로 지각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심정은, 고애란, 1997). 이상적인 외모의 여성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는 날씬한 몸매가 가장 필요하며 다음으로 세련된 옷차림을 들었다. 또한 이상적인 외모의 남성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는 큰 키가 가장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외모만족도는 남녀 모두 사회계층이나 생활수준이 높고 학교성적이 좋을수록 높게 나타났다(구자경, 이명희, 1994; 한국청소년개발원, 2000; 김정애, 2001).

이와 같이 청년기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외모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급격한 신체변화로 인해 자신의 외모에 관심이 급증하는 시기로서 신체매력성이나 체형에 관심을 나타내는 외모관리태도를 갖게 되고 이것은 의복태도와 관련되어 나타난다. 특히 이성의 반응을 고려한 의복태도나 의복으로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려고 하거나 자신의 신체 매력성을 과시하려는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또한 최신 유행 스타일이 체형을 강조하는 의복형태로 변화되는 것을 고려할 때 자신의 신체를 나타내고자 하는 태도는 유행하는 의복을 선택하는 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복식사회·심리학적 연구에서 청년기의 변화하는 신체적 요인들을 통합한 외모관리행동과 의복태도와 의 관련성을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2. 의복태도

의복은 사회·문화적으로 공유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외모의 부분이고 신체와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신체의 연장으로서 개인의 신체적 외모에 대한 평가나 느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조선명, 1999). 즉, 개인은 사회적 이상을 내면화하면서 자신의 신체를 평가하고, 이상적인 신체모습과 자신과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개인은 의복이 부여하고 있는 혜택을 통해 자신을 변화하고 향상시키도록 동기화한다(Kaiser, 1990). 또한 의복은 개인의 외모관리를 위한 보편적인 도구로 활용되어 신체수정이나 신체부가물의 한가지로 작용된다(Roach-Higgins, Eicher & Johnson, 1995).

개개인의 의복행동은 단순히 신체보호를 위한 기능적인 차원을 넘어 자신의 욕구나 관심, 습관 등 심리적 요인에 의하여 나타난다. 또한 집합적 의미에서 의복행동은 그 집단의 문화를 알리는 상징적 단서가 되는데 특히 청년기는 높은 의복관심과 다양한 의복하위문화가 존재하는 독특한 연령층이다. 의복태도는 의복의 태도, 습관, 착용 행동을 뜻하며 의복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응하려는 일반적인 경향으로 의복행동의 하위개념이다. 즉, 개인의 일반적인 의복착용 행동을 의복태도라 칭하고, 의복행동은 의복태도의 상위차원으로서 폭넓은 의복변인의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이은실, 이명희, 1998).

본 연구에서는 청년기의 외모관리행동의 수단이 되는

의복태도를 유행추구, 성적매력성, 개성/자기표현, 심미성, 정숙성을 중심으로 조사하고자 한다.

먼저 유행과 관련해서 청년기는 또래들 사이에서 자신을 나타내고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 의복의 유행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러한 현상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서 더 많이 나타난다(이유선, 1998; 김경희, 정성지, 2000; 백선영, 이선재, 2000). 유행과 관련해서 청소년기 여학생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할수록 유행 행동에 적극적이었고, 이성에게는 좀 더 관심을 끌고 호감을 얻으려는 목적에서 유행 행동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김희창, 1998). 남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윤미경(1997)의 연구에서도 유행에 민감하여 전체 20%만이 유행에 뒤처지는 옷을 상관하지 않고 입는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유행에 대한 태도는 구매심리에 자극을 주어 상품구입시 유행을 고려하였다(김경희, 1996). 심정은과 고애란(1997)의 연구에서 여학생들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체형변화에 있어서 성인의 모습으로 점차 자리잡게 됨에 따라 체형을 강조하는 유행의 복을 구입하는 경향이 높다고 하였다. 또한 청소년들은 비행정도가 높을수록 정보탐색을 많이 하여 유행에 더 몰입하였으며 유행몰입의 정도가 높을수록 패션정보탐색의 정도가 높았다(이은실, 이명희, 1999; 홍선옥, 1998). 최윤정과 김미숙(1999)의 연구에서는 여학생들은 유행에 대한 태도가 우호적이고 또한 필요해서 보다 마음에 드는 것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구매심리를 자극하였고, 의복구매 시 합리적, 실용성에 입각한 구매보다는 외형적인 매력에 의해 의복을 구매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의복을 선택할 때 유행과 외형적인 면에만 치우친 나머지 학생의 신분을 잊고 결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송경자와 김재숙(1999)의 연구에서는 신체이미지가 긍정적일수록 유행 관심도는 높았으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유행관심도는 낮았다. 특히 유행과 관련해서 여고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비교적 많았다. 오중은(1995)은 여고생들은 또래 집단에 속한 사람들과 같은 유행에 동조하면서 직접적인 소속감과 자부심을 느끼게 된다고 하였다. 김경희(1996)는 여고생들이 개방적이고 활동적이며 유행에 민감한 특성을 보이며 상품구입 시 유행을 고려한다고 하였다. 양인숙(1991)의 연구에서는 여고생들은 다른 어느 시기보다 가장 정서가 불안정하고 외모나 의복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이며 유행을 중요시한다고 하였다.

성적매력성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청소년기에는 신체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됨에 따라 이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이성에게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를 원하게 된다(이인자, 이경희, 신효정 2001)고 하였다. Hurlock(1976)은 청소년은 신체의 변화를 인식하게 되면

서 이성으로부터 호감을 얻고자 의복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안귀덕(1992)의 한국 청소년의 여가활동과 일탈행동 연구에서 청소년들은 이성교제시 자신의 용모와 옷차림에 대하여 가장 많은 신경을 쓴다고 하였으며, 이는 이성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그들의 욕구를 반영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청소년기 의복행동 연구에서도 여고생은 대인 관계에서 옷차림의 중요성을 더 많이 인식하고 있었으며 특히 이성을 의식할수록 또래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스타일의 의복이나 머리 모양을 따르는데 적극적으로 행동한다고 하였다(김희창, 1998).

의복에서 개성은 다른 사람과는 달리 독특하게 옷을 입고자 하는 것으로 독특하고 특이한 스타일을 채택하는 독립성 추구하고 새로운 스타일을 초기에 채택하는 유행혁신의 행동이다(Kaiser, 1985). 또한 개성적 행동은 자신이 다른 위치의 존재이고 싶어하는 욕구의 표출이다. 독립성과 자신감이 개성적 행동을 좌우하였으며, 의복의 개성표현은 자신감과 긍정적인 자기 자신을 확립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Horn, Gurel, 1981). 청년기는 자신의 외모관리와 옷차림에서 동료집단에 대한 동조현상이 나타나지만 동시에 평범한 것을 싫어하며 독특한 자기만의 개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매우 크다. 대부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개성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의복을 타인을 의식한 과시적 수단으로 사용한다고 하였다(심정은, 고애란, 1997; 홍선옥, 1998). 또한 청소년들은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개성을 중요시하였다(박선영, 1990; 홍선옥, 1998). 고애란, 진병호, 심정은(2000)의 연구에서는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높은 점수를 나타내어 자기 위주로 의복을 착용하여 개성을 강조하려는 경향이 높다고 하였다.

의복에서의 심미성은 조화와 아름다움을 위해 의복을 착용하거나 장식하는 태도를 의미한다(Creekmore, 1963). 청년기는 외모나 의복에 대한 중요성이 특히 커지게 되는데, 이 시기는 의복의 편의적, 실용적 측면보다는 주로 유행이나 디자인 등 의복의 심미적 측면에 관심을 보이게 된다(서혜원, 2003). 심미성은 다른 의복태도 변인과의 관련이 있어 심미성이 높을수록 유행과 개성을 중요시하였다(이유선, 1998). 청년기 외모에 대한 관심은 의복의 심미성을 중요시하는 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청소년들은 가정의 소득이 높을수록 의복의 심미성과 유행을 중요시하였으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유행에 대한 관심이 낮았다(이유선, 1998; 송경자, 김재숙, 1999).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Creekmore(1963)의 연구에서 심미적 가치관이 높은 여대생은 외모를 중요시하여 의복을 아름답게 입으려 노력한다고 하였다. 조윤주와 이정란(2004)의 연구에서는 자신의 체형 중 신장에 대한 인식이 의복행

등 중 심미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즉, 키나 다리의 길이가 길수록 의복의 무늬, 질감, 디자인 및 스타일 등에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숙성은 의복에 있어서 신체의 과도한 노출이나 타인의 주의집중을 받는 옷차림을 싫어하여 보수적이고 예의 있는 복장으로 하고자 하는 것을 뜻한다. 정숙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중·고등학생들은 의복태도 변인 중에서 정숙성을 가장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명희, 1999). Hurlock(1973)은 청소년들은 자기를 인식하고 부끄러워하며 외모나 의복에 대해서 가능하면 타인의 눈에 띄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여중생이 여고생보다 정숙성을 더 중요시한 연구(김영인, 강혜원, 1981; 이명희, 1999)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여고생이 여중생보다 정숙성을 더 중요시한 연구(송기숙, 1990)도 있었다. 홍선옥(1998)은 학교성적과 의복과의 관계연구에서 청소년들은 성적이 높을수록 정숙성을 중요시한다고 하였다. 이명희(1999)의 연구에서는 용돈이 많고 학교성적이 낮을수록 정숙성을 중요시 하지 않았고 학생신분에 부적절한 복장을 착용하는 정도가 높다고 하였다. 남·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윤원숙(2003)의 연구에서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의복태도 변인 중 정숙성이 높았다. 박성연, 이종미 그리고 임숙자(2001)의 연구에서는 동조성을 제외한 심미성, 정숙성, 심리적 안정성, 과시성, 의복 관심도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즉, 여고생이 남자 고등학생에 비해 보다 의복의 미적인 면과 단정한 면을 중요시하며 의복을 통해 자기 자신을 과시하려는 욕구와 관심이 높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청년기는 자신의 외모를 극복하기 위해 의복을 사용하고 있었다. 외모에 대한 만족과 불만족은 기분이나 행동에 영향을 주게 되어 의복을 잘 입었다고 느낄 때는 더 자신감이 있고 적극적이 되나, 적당하지 못한 의복을 입었을 때는 심리적으로 위축감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청년기 외모관련태도와 의복태도와의 관련성을 조사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조사를 토대로 청년기 의복태도 연구의 기초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전라북도에 소재한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각각 2학년에 재학 중인 여학생 700명 이었다.

구체적으로 청년초기에 해당되는 여중생 217명, 청년중기에 해당되는 여고생 227명, 청년후기에 해당되는 여대생 256명이었다. 조사 시기는 2005년 11월 중에 실시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분포는 먼저 부모의 학력으로 고졸이 각각 53.9%, 62.3%로 가장 많았다. 아버지의 직업은 사무직이 165명(23.6%)으로 가장 많았고,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도 157명(22.4%)이나 되었다. 어머니의 직업은 전업주부(43.6%)보다 취업주부(56.4%)가 많았으며, 판매직과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2. 측정도구

본 연구는 조사연구방법으로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측정도구는 외모관련태도(외모에 대한 태도, 신체만족도)와 의복태도로 구성되었다. 모든 설문문항은 5점 Likert 형 척도로 측정하였다.

먼저 외모관련태도에서 외모에 대한 태도는 신체적 외모의 중요성과 이상적인 사회기준에 대한 개인의 태도를 의미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Heinberg 등(1995)이 개발한 문항(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appearance)과 이은희(2003)의 연구를 참조하여 본 연구에 맞게 연구자가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외모에 대한 동조, 외모에 대한 가치, 외모에 대한 욕구로 각각 10문항씩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외모에 대한 동조는 사회생활에서 다른 사람들의 외모와의 비교 내지는 그렇게 보이고자 하는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자신의 행동이나 의견을 바꾸어 타인의 외모를 따르려는 태도를 의미한다. 외모에 대한 가치는 우리 사회에서 외모에 대하여 갖는 시각에 관한 내용과 매력적인 외모에 대한 실제적인 시각을 의미한다. 외모에 대한 욕구는 자신의 외모가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외모변화를 향상시키는 데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여, 계속적으로 외모관리를 하고자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각 변인의 Cronbach's α 신뢰도 계수는 .82, .80, .86이었다.

다음으로 신체만족도는 개인이 신체의 각 부분에 대하여 만족하거나 불만족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김양진(1996)과 전경란(2002)의 연구를 참조하여 신체만족도의 부위를 얼굴, 상반신, 하반신, 전신으로 분류한 15개 항목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으며, Cronbach's α 신뢰도 계수는 .91이었다.

의복태도 문항은 유행추구, 성적매력성, 개성/자기표현, 심미성, 정숙성으로 구분하여 선행연구(박혜선, 1995; 조선명, 1999; 고애란, 진병호, 심정은, 2000; 김광경, 이금실, 정미실, 2001; 전경란, 이은희, 2005)에서 사용한 문항을 연구대상에 맞게 수정하여 26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분석을 위하여 수집된 자료는 SPSS 11.5 for Windows Program을 이용하여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주요 변인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의복태도의 차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하였고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청년기 발달단계에 따른 외모관리행동(외모에 대한 태도, 신체만족도)과 의복태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분류분석(One-way ANOVA)과 Duncan의 다중범위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외모관련태도와 의복태도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관계로 분석하였다. 청년기 여학생의 외모관련태도가 의복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1. 의복태도의 요인분석

의복태도를 조사한 26문항에 대하여 주성분분석과 Varimax 회전법에 의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고유치 1이상의 기준에 의하여 요인과 문항의 내용을 검토하

면서 요인에 적합하지 않은 2개 문항이 제외되고, 5개 요인의 24개 문항이 선택되었다.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요인 1>은 의복의 유행에 관심을 가지며, 자신의 의복선택시 유행을 수용하는 유행추구에 관련된 내용이며 요인 부하량은 .58이상이고 모두 5문항이 포함되었다. 고유치는 7.36이고 설명력은 30.6%이며, 신뢰도는 $\alpha=.84$ 로 나타났다.

<요인 2>는 이성의 관심을 끌고 섹시하게 보이려는 의복사용을 의미하는 성적매력성에 관련된 내용이며 요인 부하량은 .53이상이고 모두 5문항이 포함되었다. 고유치는 2.23이고 설명력은 9.27%이며, 신뢰도는 $\alpha=.85$ 로 나타났다.

<요인 3>은 다른 사람들의 의복과는 상관없이 자신에게 어울리는 의복을 착용하려는 태도인 개성/자기표현에 관련된 내용이며 요인 부하량은 .56이상이고 모두 5문항이 포함되었다. 고유치는 1.35이고 설명력은 5.61%이며, 신뢰도는 $\alpha=.81$ 로 나타났다.

<요인 4>는 의복을 통해 자신의 외모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려는 심미성에 관련된 내용이며 요인 부하량은 .55이상이고 모두 5문항이 포함되었다. 고유치는 1.22이고 설명력은 5.08%이며, 신뢰도는 $\alpha=.81$ 로 나타났다.

<요인 5>는 성적 흥미와 관련된 신체노출이나 신체에 밀착된 의복을 피하며, 예의에 어긋나지 않게 의복을 착용하려는 정숙성에 관련된 내용이며 요인 부하량은 .50이상이고 모두 4문항이 포함되었다. 고유치는 1.03이고 설명력은 4.30%이며, 신뢰도는 $\alpha=.68$ 로 나타났다.

<표 1> 의복태도의 요인분석

요인	요인부하량
<요인 1> 유행추구	
내 친구들은 자주 내게 유행에 관해 물어본다.	.72
요즈음 유행하는 패션(의복)스타일에 대해 알고 있다.	.69
유행하는 옷이나 액세서리를 친구들보다 먼저 구입한다.	.68
최신 유행 정보를 담은 잡지를 정기적으로 읽고 있다.	.63
새로운 패션을 알기 위해 연예인의 옷차림에 관심이 많다.	.58
변량(%) = 30.6 고유치 = 7.36 $\alpha = .84$	
<요인 2> 성적매력성	
친구들 모임에서 나의 매력을 나타내는 옷차림을 한다.	.79
나는 이성친구의 관심을 끄는 옷을 주로 입으려 한다.	.69
새 옷을 살 때 이성친구의 호감을 줄 수 있는지 생각한다.	.55
이성친구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옷차림에 신경을 많이 쓴다.	.54
이성친구를 사귀는 데 옷차림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53
변량(%) = 9.27 고유치 = 2.23 $\alpha = .85$	

<표 1> - 계속

요인	요인부하량
<요인 3> 개성/자기표현	
나만의 개성을 나타내는 옷을 주로 입어 관심을 끌고 있다.	.77
옷으로 나만의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은 흥미있는 일이다.	.74
나의 외모를 돋보일 수 있는 스타일의 옷을 선택한다.	.71
나만의 감각을 연출할 수 있는 옷을 입는다.	.63
나는 독특한 스타일의 옷을 즐겨 입는다.	.56
변량(%) = 5.61 고유치 = 1.35 α = .81	
<요인 4> 심미성	
나는 나의 의복이 멋있다는 평을 듣기 위해 노력한다.	.60
옷의 색, 디자인, 재질이 조화된 옷을 신경써서 구입한다.	.59
될 수 있으면 옷에 맞는 액세서리를 하려고 노력한다.	.57
옷을 입을 때 전체적으로 맞추어 입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56
나는 가능한 멋있고 아름답게 보이도록 옷을 입는다.	.55
변량(%) = 5.08 고유치 = 1.22 α = .81	
<요인 5> 정숙성	
몸에 꼭 끼는 의복이 유행한다 해도 입지 않을 것이다.	.77
외출할 때 지나치게 신체를 드러내는 옷은 입지 않는다.	.66
나는 정숙한 옷차림을 좋아한다.	.57
나는 시선을 집중시킬만한 옷은 입지 않는다.	.50
변량(%) = 4.30 고유치 = 1.03 α = .68	

2. 발달단계에 따른 외모관련태도와 의복태도

청년기 발달단계에 따른 외모관련태도(외모에 대한 태도, 신체만족도)와 의복태도의 차이를 일원변량분석과 Duncan의 다중범위검증($p < .05$)으로 조사한 결과는 <표 2>, <표 3>과 같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모관련태도변인인 외모에 대한 태도 욕구·가치·동조와 신체만족도 모두 발달단계에 따라 $p < .001$ 수준에서 아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외모에 대한 욕구와 가치, 그리고 신체만족도는 여대

생이 중·고등학교 여학생보다 높았고, 외모에 대한 동조는 여고생과 여대생이 여중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청년기 신체만족도는 평균값이 2.94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신체적 자아상에 대해 조사한 한국청소년개발원(2000)의 연구에서는 신체만족도가 3.09로 본 연구보다 높았다. MacGillivray와 Wilson(1997)의 연구에서도 청년 후기 청소년들은 초기 및 중기의 청소년들보다 신체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청소년들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아름다움과 매력성에 대한 규범을 내면화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심정은, 고애란(1997)의 연

<표 2> 발달단계에 따른 외모관련태도의 차이

발달단계		여중생 (n=217)	여고생 (n=227)	여대생 (n=256)	F
외모에 대한 태도	외모에 대한 욕구	2.89 ^b	2.94 ^b	3.16 ^a	15.72 ^{***}
	외모에 대한 가치	2.73 ^c	2.97 ^b	3.28 ^a	64.22 ^{***}
	외모에 대한 동조	2.83 ^b	3.01 ^a	3.01 ^a	5.91 ^{***}
신체만족도		2.90 ^b	2.85 ^b	3.06 ^a	8.65 ^{***}

*** $p < .001$ 문자 a, b, c는 Duncan의 다중범위검증($p < .05$)

<표 3> 발달단계에 따른 의복태도의 차이

의복태도	발달단계	여중생 (n=217)	여고생 (n=227)	여대생 (n=256)	F
유행추구		3.77 ^b	3.93 ^a	3.97 ^a	9.50***
성적매력성		2.79 ^b	3.07 ^a	3.12 ^a	17.17***
개성/자기표현		2.93 ^b	3.14 ^a	3.15 ^a	9.78***
심미성		3.12 ^c	3.38 ^b	3.50 ^a	28.65***
정숙성		3.39 ^a	3.16 ^b	3.23 ^b	8.98***

***p<.001 문자 a, b, c는 Duncan의 다중범위검증(p<.05)

구에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신체매력성이 높게 나타났고, 고애란, 진병호, 심정은(2000)의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이 중학생이나 대학생보다 자신의 체형을 가장 많이 의식하였고, 연령이 높을수록 자신의 신체를 매력적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여대생의 신체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또한 고애란과 김양진(1996)의 연구에서는 중학생과 대학생보다 고등학생들이 신체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에서 현대사회의 외모지상주의가 청소년들에게 지나친 자극이 되고 있고 어느 시기보다 아름다움과 매력성에 대한 내면화 과정이 빨라져 청년초기에 자신의 신체에 대한 만족도가 낮지만 실질적인 외모변화에 대한 욕구는 보다 자유로운 대학생 시기에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3>에서 의복태도 변인인 의복의 유행추구, 성적매력성, 개성/자기표현, 심미성, 정숙성 모두 발달단계에 따라 p<.001 수준에서 아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정숙성을 제외한 모든 변인에서 여대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Drake와 Ford(1979)는 후기청소년으로 갈수록 극단적으로 다른 사람의 의견에 예민하고 자신을 좋아해 주기를 원하며 다른 사람이 자신의 외모에 대해 잘못된 점을 보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신의 외적인 매력을 다른 사람이 인정하기 위한 의복을 착용한다고 하였다. 최정선, 유태순, 오희선(2000)의 연구에서는 대학생보다 중·고등학생이 의복의 유행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중생보다는 여고생이나 여자대학생이 의복의 개성을 더 중요시하였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의복의 개성을 중요시한 이명희(1999)의 연구와,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의복의 개성표현에 높은 점수를 나타내어 자기위주로 의복을 착용하고 개성을 강조하려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고애란, 진병호, 심정은(200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송기숙(1990)의 연구에서는 여고생이 여중생보다

심미성을 더 중요시하였고, 장혜연(2000)의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이 대학생보다 심미성을 중요시하여 청소년 초기보다 중기에 의복의 심미성에 관심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여대생이 여중생이나 여고생보다 심미성이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송기숙(1990)의 연구에서 여고생이 여중생보다 정숙성을 중요시한 것과 본 연구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이것은 과거 여학생들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신체적으로 성숙하게 되어 외모의 변화가 커지므로 신체노출을 적게 한 단정한 옷차림을 선호하였으나, 디지털세대로 대표되는 현대 청소년들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신의 외모를 노출하고자 하는 옷차림을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외모관련태도변인 모두 여대생이 높게 나타난 것과 정숙성을 제외한 의복태도 변인에서 여대생이 높게 나타난 것은 외모변화에 대한 태도가 의복태도에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3. 외모관련태도와 의복태도와의 관계

외모관련태도와 의복태도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관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외모에 대한 태도 변인(외모에 대한 욕구·가치·동조)은 의복태도 변인인 의복의 유행추구, 성적매력성, 개성/자기표현, 심미성과 p<.01 수준에서 정적관계를 나타내었으며, 정숙성과는 부적관계를 나타내었다. 신체만족도는 의복태도 변인 중 성적매력성, 개성/자기표현, 심미성과 p<.01 수준에서 정적관계를 나타내었으며, 정숙성과는 부적관계를 나타내었다. 다시 말해서 외모에 대한 욕구와 가치, 동조의식이 높으며, 신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여학생들은 유행을 추구하고 개성과 자기 표현력과 성적매력성이 높으며 심미성도 높았다. 또한 외모에 대한 태도가 낮고 신체만족도가 낮은 여학생들은 정숙한 의복

<표 4> 외모관련태도와 의복태도와 의 상관관계

외모관련태도 의복태도	외모에 대한 태도			신체 만족도
	외모에 대한 욕구	외모에 대한 가치	외모에 대한 동조	
유행추구	.628**	.496**	.603**	-.022
성적매력성	.610**	.467**	.576**	.193**
개성/자기표현	.500**	.475**	.442**	.144**
심미성	.551**	.476**	.481**	.079**
정숙성	-.220**	-.153**	-.214**	-.081**

**p<.01

을 선호하고 있었다.

4. 의복태도에 대한 관련 변인의 영향력

의복태도에 대하여 외모에 대한 태도와 신체만족도 변인이 동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단계적 (stepwise) 방법에 의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의복태도의 유행추구의 경우 외모에 대한 욕구와 동조

순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2개 변인을 통한 설명력은 43.9%이었다. 청년기 여학생의 유행추구에는 외모에 대한 태도 중 외모에 대한 욕구와 동조 순으로 영향을 주었다. 즉, 외모에 대한 욕구와 동조가 높은 여학생이 의복태도 변인 중 유행을 중요시하였다.

의복태도 중 성적매력성은 외모에 대한 욕구와 동조, 신체만족도, 발달단계 순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4개 변인을 통한 설명력은 48.1%이었다. 성적매력성은 신체만족도가 큰 영향을 주었고, 그 다음으로는 외모에 대한 태도 중 외모에 대한 욕구와 동조, 발달단계에

<표 5> 의복태도에 대한 관련 변인의 영향력

종속변인	독립변인	beta	t	R ²	F
유행추구	외모에 대한 욕구	.431	7.561***	.439	108.623***
	외모에 대한 동조	.308	7.130***		
성적매력성	외모에 대한 욕구	.355	7.963***	.481	128.391***
	외모에 대한 동조	.296	8.283***		
	신체만족도	.451	9.265***		
	발달단계	.061	2.442**		
개성/자기표현	외모에 대한 욕구	.382	6.558***	.300	59.401***
	외모에 대한 동조	.189	4.285***		
	신체만족도	.196	5.969***		
심미성	외모에 대한 욕구	.366	6.547***	.358	77.270***
	외모에 대한 동조	.172	4.071***		
	신체만족도	.119	3.768***		
	발달단계	.105	4.278***		
정숙성	외모에 대한 욕구	-.163	-2.421**	.072	10.773***
	외모에 대한 동조	-.141	-2.757**		
	신체만족도	-.102	-2.679**		
	발달단계	-.060	-2.005**		

p<.01, *p<.001

따라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다. 즉, 신체만족도가 높고, 외모에 대한 욕구와 동조가 높은 여대생이 의복의 성적매력성을 중요시하였다.

개성/자기표현은 외모에 대한 욕구, 신체만족도, 외모에 대한 동조 순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3개 변인을 통한 설명력은 30.0%이었다. 의복태도 중 개성/자기표현은 외모에 대한 욕구가 큰 영향을 주었고, 신체만족도, 그 다음으로는 외모에 대한 동조에 따라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다. 즉 외모에 대한 욕구와 동조가 높고 신체만족도가 높은 여학생들이 의복의 개성/자기표현을 중요시하였다.

심미성은 외모에 대한 욕구와 동조, 신체만족도, 발달단계 순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4개 변인을 통한 설명력은 35.8%이었다. 의복태도 중 심미성은 외모에 대한 태도 중 외모에 대한 욕구가 큰 영향을 주었고, 그 다음으로는 외모에 대한 동조, 신체만족도, 발달단계에 따라 유의적인 따라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다. 즉 외모에 대한 욕구가 높고, 외모에 대한 동조와 신체만족도가 높은 여대생이 의복의 심미성에 관심이 높았다.

의복태도 중 정숙성은 외모에 대한 욕구, 외모에 대한 동조, 신체만족도, 발달단계 순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4개 변인을 통한 설명력은 7.2%이었다. 외모에 대한 태도 중 외모에 대한 욕구(-)와 동조(-), 신체만족도(-), 발달단계(-)에 따라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다. 즉 외모에 대한 욕구와 동조가 낮고, 신체만족도가 낮은 중학생이 의복의 정숙성에 관심이 높았다.

이상에서 볼 때 청년기의 외모관련태도인 외모에 대한 태도와 신체에 대한 만족도는 의복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V. 결론

본 연구는 2005년 11월 중에 청년 초기·중기·후기에 해당되는 전북지역 중·고등학교 여학생과 여대생 700명을 대상으로 외모관련태도와 의복태도와의 관련성을 알아보고, 이들 변인들의 영향력을 조사함으로써 청년기 의생활 연구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기 의복태도의 차원을 알아본 결과, 유행추구, 성적매력성, 개성/자기표현, 심미성, 정숙성의 5개 요인으로 나타났다.

둘째, 발달단계에 따른 외모관련태도와 의복태도의 차

이를 알아본 결과, 외모관련태도변인인 외모에 대한 태도 욕구·가치·동조와 신체만족도 모두 발달단계에 따라 $p<.001$ 수준에서 아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외모에 대한 욕구와 가치, 신체만족도는 여대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외모에 대한 동조는 여고생과 여대생이 여중생보다 높았다. 의복태도는 모든 변인이 발달단계에 따라 $p<.001$ 수준에서 아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정숙성을 제외한 모든 변인에서 여대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셋째, 청년기 외모관련태도와 의복태도와의 관련성을 조사하였다, 먼저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를 사용하여 외모관련태도와 의복태도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외모에 대한 욕구와 가치, 동조의식이 높으며, 신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여학생들은 의복태도에서 유행을 추구하고 개성과 자기 표현력과 성적매력성이 높으며 심미성도 높았다. 또한 외모에 대한 태도가 낮고 신체만족도가 낮은 여학생들은 정숙한 의복을 선호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의복태도에 대하여 외모에 대한 태도와 신체만족도 변인이 동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단계적(stepwise) 방법에 의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외모에 대한 욕구와 동조가 높은 여학생이 의복태도 변인 중 유행을 중요시하였으며, 외모에 대한 욕구와 동조가 높고, 신체만족도가 높은 여학생이 의복의 성적매력성, 개성/자기표현, 심미성을 중요시하였다. 외모에 대한 욕구와 동조가 낮고, 신체만족도가 낮은 중학생이 의복의 정숙성에 관심이 높았다.

이상에서 볼 때 청년기의 외모관련태도인 외모에 대한 태도와 신체에 대한 만족도는 의복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측정도구가 표준화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과, 특정지역의 중·고등학교, 대학교 여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앞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의 연령층을 더욱 확대하여 외모관련태도와 의복태도와의 관계를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며, 청년기의 의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환경을 폭넓게 파악하는 것이 요구된다.

주제어 : 청년기, 외모관련태도, 의복태도

참고 문헌

- 고애란, 김양진 (1996) 청소년의 의복행동에 대한 자아중심성, 자아의식, 신체만족도의 영향 연구. 한국리뷰학회지, 20(4). 667-681.

- 고애란, 진병호, 심정은 (2000) 청소년기 여학생의 의복행동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 -연령·지역 차이와 심리적 특성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한국의류학회지*, 24(4), 475-486.
- 구자경, 이명희 (1994) 남녀 중학생의 외모만족도와 사회성 및 성취동기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5), 153-163.
- 구정화 (1994) 청소년의 자기평가에 관한 연구 -성별, 학교변인 별, 가정변인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19, 95-113.
- 김양진 (1996) 유행 의복 이미지가 개인의 자아개념과 의복태도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양진, 강혜원 (1996) 의복 및 신체만족도와 학업성취도가 사회적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16(2), 197-211.
- 김경희 (1996) 여고생의 유행선도력에 따른 구매 전 의사결정 과정.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경희, 정성지 (2000) 중·고등학생들의 의복동조와 의복태도와 의 관련 연구 - 서울거주자를 중심으로 -. *한국의류학회지*, 24(3), 401-410.
- 김광경, 이금실, 정미실 (2001) 다원적 신체이미지가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5(2), 358-365.
- 김영인, 강혜원 (1981) 여자 중 고등학교 학생들의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5(2), 13-20.
- 김정애 (2001) 여고생의 신체만족도와 외모관리 행동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재한 (1998) 발달심리학. 서울:양서원.
- 김희창 (1998) 청소년기 여학생의 심리적 특성과 또래집단 수용이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선영 (1990) 자아정체감과 의복행동과의 상관 연구 : 남녀 대학생을 중심으로. *상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선영, 이종미, 임숙자 (2001) 남·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물질주의 가치관과 의생활·식생활 행동. *대한가정학회지*, 39(8), 1-18.
- 박혜선 (1995) 의복 태도 변인들에 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9(6), 968-983.
- 백선영, 이선재 (2000) 고교생의 성역할 정체감과 의복관여 및 의복만족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4(1), 55-66.
- 서혜원 (2003) 청소년기 여학생의 자기이미지가 의복행동 및 상표선택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경자, 김재숙 (1999) 신체이미지, 신체왜곡 및 자아존중감이 의복태도에 미치는 영향 -태도적, 지각적, 신체이미지 측정을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7(5), 68-79.
- 송기숙 (1990) 여자 중·고등학생의 의복행동 요인분석과 인구통계적 변인과의 관련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심정은, 고애란 (1997) 청소년기의 자의식 및 체중조절행동과 의복행동과의 관련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1(8), 1334-1345.
- 안귀덕 (1992) 한국 청소년의 여가활동과 일탈행동. *한국 청소년문화II*. 성남: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양인숙 (1991) 교사의 의복행동에 대한 여고생들의 선호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원숙 (2003)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 또래수용과 의복태도와 의 관련 연구.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명희 (1999) 청소년의 가정환경 및 학교 생활적응이 의복태도에 미치는 영향. *복식*, 46, 143-158.
- 이명희 (2001) 디지털시대의 청소년과 의생활 문화. *가정문화운동 심포지엄: 디지털 시대와 가정문화*. 이화여자대학교 인간생활환경연구소, 33-47.
- 이미숙 (2000) TV 미디어가 청소년의 신체이미지와 의복행동 및 모방행동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인자, 이경희, 신효정 (2001) 의상심리. 서울: 교문사.
- 이유선 (1998) 남녀 고등학생의 사회적 가치관과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은실, 이명희 (1998) 의복행동 및 의복태도 관련 변인에 관한 문헌고찰. *생활문화연구*, 12(1). *성신여자대학교 생활문화연구소*, 1-25.
- 이은실, 이명희 (1999) 청소년의 비행정도와 정보탐색 및 유행 물입과의 관계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3(3), 402-413.
- 이은희 (2000) 청소년의 소비문화의 특성과 문제점. *월간 소비자*, 218, 24-28.
- 이은희 (2003) 고등학생의 심리적 특성과 외모에 대한 태도가 의복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12(2), 237-251.
- 장혜연 (2000) 대학생과 고등학생의 가치관과 의복행동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경란 (2002) 여성의 욕구, 자아존중감과 성형 및 의복태도의 관련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전경란, 이은희 (2005) 청소년의 욕구가 성형 및 의복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14(1), 119-132.
- 정재은, 이순원 (1993) 20대 여성의 실제 체형과 이상형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7(3), 448-458.
- 조선명 (1999)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신체이미지가 의복추구행태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운주, 이정란 (2004) 여대생의 체형인식에 따른 만족도와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8(2), 262-269.
- 최윤정, 김미숙 (1999) 유행 태도에 따른 여고생의 의복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7(4), 111-126.

- 최정선, 유태순, 오희선 (2000) N세대(Net Generation)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패션구매태도에 관한 연구. *복식*, 50(6), 21-31.
- 한국청소년개발원 (2000) 청소년의 신체적 자아상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 00-R10.
- 홍선옥 (1998) 청소년의 비행정도가 의복태도 및 의복착용시 영향집단과의 관계.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Cash, T., Winstead, B. & Janda, L. (1986) The great American shape-up : Body image survey report. *Psychology Today*, 20(4), 30-37.
- Creekmore, AM (1963) Method of measuring clothing variables. *Michigan State University Agricultural Experiment Station Project, no. 783*, Michigan State University.
- Drake, MF, & Ford, IM (1979) Adolescence clothing and adjustment,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7, 283-291.
- Featherstone, M (1991) *The Body in Consumer Culture*. London: Sage Publications.
- Heinberg, LJ, Thompson, JK. & Stormer, SM (1995)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s appearance questionnaire.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17(1), 81-89.
- Horn, MJ, & Gural, LM (1981) *The second skin: An interdisciplinary study of clothing*(3rd ed.). Boston: Houghton Mifflin.
- Hurlock, EB (1976) *The psychology of dress: An analysis of fashion and its motive*. New York: Arno Press.
- Jacobi, L., & Cash, TF (1994) In pursuit of the perfect appearance: Discrepancies among self-ideal percept of multiple physical attribute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4(5), 379-396.
- Kaiser, SB (1985)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and Personal Adornment*. New York: Macmillan, 315-316.
- Kaiser, SB (1990)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symbolic appearance in context*(2nd ed.). New York: Macmillan.
- Lennon. SJ, Rudd, NA, Sloan, B, & Kim, JS (1999) Attitudes toward gender roles, self-esteem, and body image: Application of a model. *Clothing and Textile Research Journal*, 17(4). 191-202.
- MacGillivray, MS, & Wilson, JD (1997) Clothing and appearance among early, middle and late adolescent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5(1), 43-49.
- Stuart, GW & Sundeen, SJ (1995) *Principle and practice of psychiatric nursing*(5th ed.). Mosby.
- Thompson, JK, & Heinberg, LJ (1999) The media's influence on body image disturbance and eating disorders: we've reviled them, now can we rehabilitate them?. *Journal of Social Issues*, 55(2). 339-353.
- Roach-Higgins, ME., Eicher, JB., & Johnson, KKP. (1995) *Dress and identity*. New York: Fairchild Publication.
- Ryan, MS (1966) *Clothing: A study in human behavior*.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290-291.
- Walker, LS, & Greere, JW (1986) The social context of adolescent self-esteem.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t*, 15, 315-322.

(2006. 12. 29 접수; 2007. 03. 09 채택)